

“승리를 호송하라” 한미 연합작전 능력 다졌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미 658지원단
무인기 공격 등 상황별 실전적 훈련
전시 통합 상황조치능력 숙달 중점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전시 완벽한 호송 작전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임무수행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군과 손을 맞잡았다. 동원전력사는 지난 11일 경기 평택시에서 포천시까지 약 154km를 미 658지원단과 함께 이동하는 한미 연합 호송작전훈련을 전개했다. 동원전력사와 658지원단은 전시 예비전력 지원, 호송작전 등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훈련은 호송작전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상황조치능력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은 호송작전 이동로 사용이 어렵거나, 무인기·급속폭발물 공격을 받는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으로 개인·팀 임무수행능력을 끌어올



육군동원전력사령부와 미 658지원단 장병들이 지난 11일 전개된 한미 연합 호송작전 훈련에서 전술 토의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렸다. 재난안전통신망과 전장이동주체계(BMTS) 등을 이용해 실시간 호송작전을 가시화하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물자 전력화 소요를 검증하며 연합작전 수행 역

량도 강화했다.

이득규(중령) 호송작전통제과장은 “동원자원을 적시에 안전하게 전방으로 전개하는 호송작전은 국가총력전 측면에서 아

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토대”라며 “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호송작전 능력을 강화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항만 테러 막아라” 해안경계태세 확립 나섰다

육군35보병사단, 군산항 방호훈련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진입로 봉쇄·폭발물 탐색 등 대응 강화

육군35보병사단 총무여단은 “군산해양경찰서·군산시청·군산세관·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최근 전북 군산시 군산항에서 항만 방호 합동훈련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훈련은 국가 중요 기반시설인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육군 경비정(육경정)을 포함한 함정 9척과 헬기 1대 등 장비·인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정체불명의 테러 세력이 어선을 피습해 탈취한 뒤 군산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다. 테러범은 선박의 위치발신장치(AIS)를 끈 채 빠르게 접근을 시도했고, 여단과 관계기관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의심 선박의 위치를



육군35보병사단 총무여단 장병들이 전북 군산시 군산항에서 진행된 항만 방호 합동훈련 중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지민 대위

특정했다. 또 함정을 이용해 차단선을 구축하고 항만 진입로를 봉쇄했다. 이후 정선 명령과 위협사격에도 불응한 의심 선박은 선내 폭발물과 인질을 이용해 위협하며 차단선을 돌파하려 했고, 여단은 경찰과 육상진압팀을 꾸려 상황에

대비했다. 이어 의심 선박이 육상 상륙을 시도했고, 육상진압팀은 신속히 테러범을 제압했다. 훈련은 폭발물 탐색과 선내 수색을 마친 뒤 합동조사반에 상황을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경래(상사) 총무여단 육경정 기관장은 “해상 밀입국, 무장 테러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으로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 수 있었다”며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굳건한 해안경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원 기자

전시 병력동원지원대 임무 수행능력 강화

육군56보병사단은 “북한산 동원훈련장에서 최근 서울지방방무청과 함께 병력동원지원대 행동화 및 통합훈련을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훈련은 전시 병력동원지원대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동원훈련 I형(동원지정 예비군)과 II형(동원 미지정·보충역) 예비군의 통합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병력동원지원대는 전시 각 병무청으로 동원돼 입영지

원, 의무반, 호송작전 등 동원집행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훈련에서는 △입영확인관 임무 절차 점검 △호송작전 소개 및 무전요령 확인 △의무반 임무 숙달 △전시 활용장비 소개 등이 전개됐다. 특히 병무청 실무자 전원이 처음으로 예비군들과 함께 모든 훈련과정을 소화해 의미를 더했다.

육군56보병사단·서울지방방무청
동원훈련 I·II형 예비군 통합 교육

김종오(중령) 사단 동원참모는 “전시 병력동원지원대의 임무는 전방부대의 임무수행 보장에 핵심”이라며 “내실 있는 병력동원지원대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사진=부대 제공

▶ 육군56보병사단 병력동원지원대 행동화 및 통합훈련에서 서울지방방무청 관계자가 예비군에게 부여받은 직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